

아동기의 자원절약행동에 관한 연구

계 선 자(숙명여대 교수)

사회화 관점에서 아동기의 자원절약을 위한 소비자로서 역할 습득은 중요한 시기이고, 성인의 행동에 기초가 되는 점을 감안 할 때,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에 대한 자원절약행동 수준과 관련 변인들을 조사 분석하여 녹색성장시대 아동기의 자원절약의식을 확산하고, 자원절약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20명 대상, 2011년 5월 10-13일 예비조사 실시 후, 본 조사는 5월 23일에서 6월 13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총 500부 자료 처리는 신뢰계수 α , 빈도, 평균, 표준 편차, ANOVA, 사후검증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 위계적 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자원절약 행동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이상(5점 만점 중 3.61) 정도로 나타나, 비교적 합리적 자원절약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하위영역별로 볼 때 사용시 절약행동(4.06)이 구매시(3.24)나 처분시 절약행동(3.70)보다 더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기의 자원절약행동은 용돈의 액수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용돈이 적은 집단인 경우 아동기의 자원절약행동수준이 더 높았으며, 하위영역별로 볼 때도 구매시, 사용시, 처분시 모두 용돈의 액수가 적은집단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용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원절약행동을 할 수 있는 자녀의 용돈지도가 더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결과라 사료된다.

셋째, 아동기의 사회 환경 변인에 따른 자원절약행동은 소비자 교육을 받고, 소비자 역할수준과 사회화 과정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 자원절약행동수준도 높게 나타났으며, 구매시, 사용시, 처분시의 하위영역에서도 모두 높았다.

넷째, 소비태도에 따른 아동기의 자원절약행동은 전체적으로 볼 때, 타인시선의식에 의한 소비태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타인시선의식이 적을수록 자원절약행동이 더 합리적이었으며, 사용시, 처분시의 하위영역에서만 타인시선의식이 적을수록 아동기의 자원절약 행동점수가 높았다.

다섯째, 아동기의 자원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용돈의 액수, 소비자역할수행, 소비자사회화과정, 타인 시선의식에 대한 소비태도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51 %이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아동기의 자원절약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시 자원절약행동을 더 모방함으로 적정규모의 용돈을 주면서 부모의 용돈지도와 아울러 가정과 학교에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녀의 소비자역할 수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아동 스스로 생활 속에서 자원절약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할 것이다.